

## 중기부, K-브랜드 플랫폼 해외진출 돕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

중소벤처기업부가 뷰티, 패션 등 ‘K-브랜드’ 제조·판매 기업들의 온라인 활용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내 유망 브랜드를 키울 플랫폼을 선별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바우처를 신설한다. 전용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물류비 완화 정책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2026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K-브랜드 전문 글로벌플랫폼 육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들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도울 글로벌플랫폼(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온라인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글로벌쇼핑몰 입점, 홍보·마케팅, 물류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중기부는 뷰티, 패션 같은 K-브랜드 분야 플랫폼 중 민간에서 시장성, 성장성, 혁신성을 인정받은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하고 글로벌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별된 플랫폼사는 리뉴얼, 글로벌 홍보·마케팅에 쓸 수 있는 최대 2억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의 글로벌플랫폼 활용도를 높이고자 민간 전문가가 발굴할 수출 유망 제품에 정부는 입점, 마케팅·홍보 시 필요한 비용을, 플랫폼사는 교육·컨설팅, 기획전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민간 거래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 및 육성한다. 전략품목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새로 도입한다.

/김승호 기자

## LX인터, 인니산 탄소배출권 수익화 승인

인니서 하상 수력발전 사업 운영  
감축 실적 국제적으로 이전·활용

LX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감축 실적을 국가 간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확보했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하상 수력발전 사업이 지난달 인도네시아 환경부로부터 파리협정 제 6.4조(이하 파리협정 체제) 기반의 탄소 감축 사업으로 공식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파리협정 체제가 발효된 2021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자국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한 첫 사례다.

파리협정 체제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감축 메커니즘으로, 유엔(UN) 주도 아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체제다.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유엔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을 계기로 LX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통해 연간 31만 톤(t) 규모의 탄소배출권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상 수력발전 사업에서 21만 톤, 팜농장 바이오가스발전 사업에서 10만 톤

/차현정 기자 hyeon@

# 6대 은행에 中企 상생지수 도입 내년 배달앱 플랫폼 등으로 확대

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방위산업 영위기업도 평가 추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안전  
국수·냉면 제조기업 재논의 예정

동반성장위원회가 6대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점수로 매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배달·오픈마켓 등 플랫폼 업종, 방위산업 분야 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명단에는 총 25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당초 이날 안건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안건에 대해선 시장 통계 자료 보충 등을 위해 3월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8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2026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라 6대 시중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우선 도입한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평가에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86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동반위

들어간다.

2027년부터는 배달앱·오픈마켓 등 플랫폼사와 방위산업 영위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방위산업 기업은 한화오션, 현대로템 등 15개사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에는 ▲전기·전자 등 제조업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면세점 ▲통신 ▲정보서비스 ▲플랫폼사업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동반위는 또 동반성장지수가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지수평가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평가 체계 다변화, 지표 간소화, 공표방식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 개편안은 2027년 지수 평가부터 적용한다. 2026년 평가대상 기업에는 HD현대미포가 HD현대중공업과 합병됨에 따라 명단에서 빠지고, 건설사인 금광기업과 남광토건이 새로 포함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인 국수와 냉면은 올해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한다. 국수의 경우 생면, 건면 그리고 냉면은 건면, 생면, 숙면이 모두 해당됐다.

이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은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장·생산시설 변경이나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 자량표부착생산(OEM)에 대해 최대 주문자량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는 허용키로 했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반성장 정책을 제도 중심에서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금융·방산 등 산업 전반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누적생산량 400만대

주요 품질 관리지표 최상위권 기록  
혼류 생산 체계 구축으로 유연성 확보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르노코리아가 새로운 역사를 작성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2000년 국내 출범 이래 26년 만에 부산공장에서 누적 생산 400만 대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르노그룹 내 D/E 세그먼트 생산을 책임지는 글로벌 허브로서,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시장에서 호평 받는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특히 국내 약 220만 대, 해외 약 180만 대의 차량을 출고하며 르노코리아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부산공장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차량은 중형 세단 SM5로, 총 95만4000대가 생산됐다. 이어 SM3와 닛산 로그가 각각 80만5000대, 58만5000대 생산되며 르노코리아의 실적을 견인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르노그룹의 글로벌 핵심 생산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공장은 르노 그룹 소속 전 세계 20여 개 자동차 공장 중 높은 품질을 지



11일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개최된 누적 생산량 400만 대 돌파 기념 행사에서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랑한다. 르노 그룹은 매년 전 세계 공장을 대상으로 4가지 지표(품질, 시간 외 생산 비용, 적기 납품, 생산성)를 평가하는데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주요 품질 관리 지표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글로벌 전략 모델 생산 중심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또 부산공장은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최대 4개 플랫폼, 8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 체계를 구축해 높은 유연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1월에는 생산 설비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자동차 기업 최초로 내연기관 생산라인을 전기차 조립까지 가능한 라인으로 전환했다. 특히 AI 비전 검사 시스템과 전기차 배터리 전용 설비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AI 비전 검사 시스템은 엔진룸 내

부, 하부 고정 부품, 피스톤 링 등 확인이 까다로운 영역까지 자동으로 검사해 결함 여부를 판별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글로벌 플래그십 크로스오버 ‘필라트’, ‘폴스타4’ 등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동시에 생산하는 미래차 생산 허브로 자리매김했다.

르노코리아 니콜라 파리 사장은 기념 행사에서 “부산공장에서 4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과 임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라며 “부산공장과 임직원들의 훌륭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번 400만 대 누적 생산을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500만 대 생산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이종석 삼표산업 사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피지컬 AI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 삼표그룹, 몰탈 생산공장 스마트화 속도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 ‘맞춤’

삼표그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몰탈 생산공장의 스마트화에 속도를 낸다.

삼표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와 ‘피지컬 AI 기술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숙련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몰탈 생산 방식을 탈피하고 데이터와 AI 기반의 공정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삼표산업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업해 정부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기술 도입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기계과 로봇이 시스템,

센서 등 환경을 인식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판단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카이스트 제조 피지컬 AI 연구소는 이 같은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삼표산업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원재료 입고부터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최신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한다.

삼표산업은 올해 자동화 컨셉 확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 공장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주문에서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